

DOCUMENT RESUME

ED 056 597

FL 002 704

TITLE Korean Advanced Course: Volume II.
INSTITUTION Defense Language Inst., Washington, D.C.
SPONS AGENCY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D.C.
REPORT NO 06KP24
PUB DATE Jul 71
NOTE 214p.
AVAILABLE FROM Director, Defense Language Institution, Department of
the Army, U.S. Naval Station, Anacostia Annex,
Washington, D.C. 20390 (With specific permission)
EDRS PRICE MF-\$0.65 HC Not Available from EDRS.
DESCRIPTORS Cultural Education; *Instructional Materials;
*Intensive Language Courses; *Korean; Korean Culture;
*Language Instruction; Reading Development; *Reading
Instruction; Reading Materials; Vocabulary
Development

ABSTRACT

ABSTRACT This is the second of seven readers, prepared by the Defense Language Institute, for continuation training in Korean after the Basic Course. The 20 reading lessons, printed in Korean script, have been drawn from several reader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70. Each unit concludes with a set of questions and a vocabulary. Special emphasis has been directed to such subjects as space travel, natural resources, industrial development, and cultural activities. Several illustrations are included. (RL)

ED 056597

KOREAN
ADVANCED COURSE

VOLUME II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 WELFARE
OFFICE OF EDUCATION
THIS DOCUMENT HAS BEEN REPRODUCED
EXACTLY AS RECEIVED FROM THE PERSON OR
ORGANIZATION ORIGINATING IT. POINTS OF
VIEW OR OPINIONS STATED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OFFICIAL POSITION OR POLICY.

704
FL 002

July 1971

DEFENSE LANGUAG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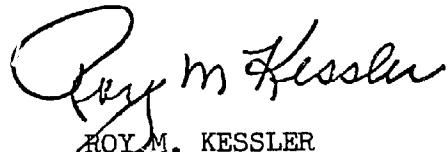
DEFENSE LANGUAGE INSTITUTE

This pamphlet is for use by the faculty, staff and students of the Defense Language Institute solely for official purposes. It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It may NOT be released to other persons, quoted or extracted for publication, or otherwise copied or distributed without specific permission in each instance from the Director, Defense Language Institute.

"PERMISSION TO REPRODUCE THIS COPY-
RIGHTED MATERIAL BY MICROFICHE ONLY
HAS BEEN GRANTED BY

Defense Language Institute

TO ERIC AND ORGANIZATIONS OPERATING
UNDER AGREEMENTS WITH THE U.S. OFFICE
OF EDUCATION. FURTHER REPRODUCTION
OUTSIDE THE ERIC SYSTEM REQUIRES PER-
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ROY M. KESSLER
Colonel, USA
Director

PREFACE

This is the second of seven readers for continuation training in Korean after the Basic Course.

The 20 articles contained herein have been drawn from several reader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70.

Each unit concludes with a set of questions and a vocabulary.

Special emphasis has been directed to such contemporary subjects as Space Travel, The Truth about North Korea, and so forth.

Each instructor is free to use this material in the manner most advantageous to his students. Coverage and sequencing of the units are flexible; not all need be covered by advanced students.

All inquiries concerning these materials, including requests for authorization to reproduce, should be addressed to the Director, Defense Language Institute, U.S. Naval Station, Anacostia Annex, Washington, D. C. 20390

TABLE OF CONTENTS

Unit

1. Democracy and Capitalism
2. Institutions that Help Industry
3. Telephone
4. Visiting the Radio Broadcasting Station
5. A Cotton Plant
6. The Stethoscope
7. Secrets of the Ocean
8. Exploring the Polar Region
9. Space Travel
10. Nature's Resources
11. The Knightings of Don Quixote
12. With Uncle
13. After Reading a Book
14. After Listening to a Lecture
15. (Beethoven's) Moonlight Sonata
16. The Pulguk Temple
17. Looking into the Traditional Arts & Crafts
18. King Sejong
19. The Truth About North Korea
20. The Chunlima Movement in North Korea



「김진홍」씨의 가족 전원이 유명한 미국의 소설
가며 시인인 「제시·스튜아트」씨를 맞아蹲였다.









Unit 1.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

민주주의란 그 뜻이 아주 넓어서 한 마디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여러 면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中最根本된 것은 사람이 누구나 다 귀중함을 깨닫고 인권(人權)을 존엄하게 여기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한 권리(權利)를 가지고 서로 도와 가면서 자유롭게 살자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인 것이다. 남을 함부로 억누름이 없이 사람마다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자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그 값어치가 크고 귀한 것이 많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물건인 이상 아무리 그 값어치가 크고 귀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소용되는 것밖에 안 된다. 금은 보석이며 훌륭한 진물이나 좋은 기계 들은 다 값이 비싼 것이겠지만, 그 자체가 귀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인간 생활에 소용되는 물건, 다시 말하면 인간 생활을 하는 데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이란 그 자체가 높고도 위엄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서 사람을 한갓 물건과는 달리 인격(人格)이라고 한다.

인격은 이와 같이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존엄하며, 다 함께 평등한 권리(권리)를 가진다. 나아가서는 그 권리(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는 데에 자유로운 것이다. 사람의 권리(권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날 적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이를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이 존중함은 인격이 존엄하기 때문이요, 인격이 존엄하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의 정신

자유라 함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언가에 얹매이지 않고 자기 뜻한 바대로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외부로부터 어떠한 속박도 받지 않는 동시에 어떤 일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인 이성(理性)에 쫓아서 올바르게 행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규칙이나 법률에 쫓는 일은 자유의 행동과 합치한다. 규칙이나 법률은 사람의 이성에서 지어 낸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등대로 행동할 수 있고 우리에게 소용되는 물건이나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이다며, 또한 우리가 우리 소망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거나 직업을 골라잡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이다며,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 개성(個性)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거나, 그 밖의 다른 일에 우리 스스로가 작정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도 모두 우리가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는 그 역사가 이미 오래이며, 옛날 그리이스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 시초에는 나라를 스리는 임금이 자기의 권력(權力)을 함부로 하여 백성의 의사를 아주 무시하였기에 이에 대항하여 백성의 뜻을 받아들여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자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즉, 백성을 주로 하는 민주(民主)의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나 생각은 근세(近世)에 이르러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즉, 프랑스의 큰 혁명이 일어났을 때 유, 평등, 박애(博愛)라는 세 가지를 내세우고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삼았다. 이는 임금이나 귀족의 권리와 름없이 온 백성이 다 함께 자유롭게 평등한 권리

누리고, 널리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도와 평화롭게 살자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출발

프랑스의 민주주의 혁명(革命)으로 말미암아 그 때까지 귀족의 압제 아래서 살던 일반 시민(市民)들이 온 유럽을 통하여 새롭게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어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된 것이다. 프랑스말로 그들을 ‘부르지와’라고 한다.

이제 ‘부르지와’들은 자기 마음껏 재산을 모으는 자유를 누리었다. 재산을 모으는 데에는 자본(資本)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자본을 들이면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은 정한 이치이다.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생겼다. 즉, 자본을 본위로 많은 이득을 보아 경제적 세력을 가지고 사회의 모든 면에서 큰 권세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부르지와’라는 말이 자본가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이다.

새로 일어난 일반 사회 시민들이 자본가로 되고 보니 모든 사회 제도가 그전과는 아주 달라지게 되었다. 중세기의 봉건(封建) 시대에는 귀족이 되면 그만이요,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자유도 권리도 없었다. 그러나, 이

제는 누구나 자유로 영리 사업을 잘 해서 많은 이익을 보아 자본가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가 큰 세력을 이루게 된 데에는 다만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었다는 것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다른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다른 아닌 산업 혁명이다. 이는 18세기 후반기로부터 기계의 발달에 따라, 특히 중기 기관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생산이 큰 규모로 이루어져서 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그것은 맨 먼저 영국에서 시작하여 널리 유럽의 여러 나라에 미쳐 갔다.

큰 규모로 생산을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 내므로 거기에는 큰 자본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서로 많은 생산으로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하여 자본가들 사이에 경쟁이 생기고, 여기에 나라가 그 뒷받침을 하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자본주의는 이로 말미암아 나라의 부강(富強)을 이룩하였고, 유럽 여러 나라들과, 이에 발을 맞추어 간 미국이 근대 이래로 세계에 앞선 나라로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와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한 자본주의는 우리 인류에게 두 가지의 커다란 공헌

을 해 주었다.

그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가 신분의 구분이 없이 평등하며, 자유로이 자기 능력과 소질을 발휘함으로써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준 점이다. 인간에게 이와 같은 신념을 준 것이 민주주의라면, 자본주의는 그것을 사실로서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주의가 한 공헌은 그 나라의 급속한 부강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일찍 자본주의 체제에 눈을 돌려 이를 실천한 나라들은 급속하게 부강하여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한 반면에, 그려지 못한 나라들은 후진국으로 처지게 되었음을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면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 를 보장하고 복지(福祉)와 번영을 가져오는 데 가장 튼튼한 지주(支柱)가 되고 있다.

QUESTIONS

1. 민주주의의 뜻은 어떤 면에 걸쳐 있습니까?
2. 무엇을 존엄하게 여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입니까?
3. 어떻게 살자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일까요?
4. 이 세상에서 모든 물건이 왜 그 자체가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5. 인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6. 사람은 언제부터 권리 를 가지고 있습니까?
7. 평등한 권리 는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습니까?
8.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9. 理性 이란 무슨 뜻입니까?
10. 사람의 이성에서 지어 낸 것이 무엇입니까?

11. 민주주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12. 백성을 주로 하는 정치가 왜 필요했습니까?
13. 프랑스에서는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14. 프랑스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누가 세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15. 누구를 '브르지وا'라고 했습니까?

16.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17. 귀족만이 자본가로 될 수 있었습니까?
18. 산업 혁명이 무엇입니까?
19. 무엇이 나라의 부강을 이루 하였어요?
20.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공헌을 한것이 무엇이겠습니까?

VOCABUL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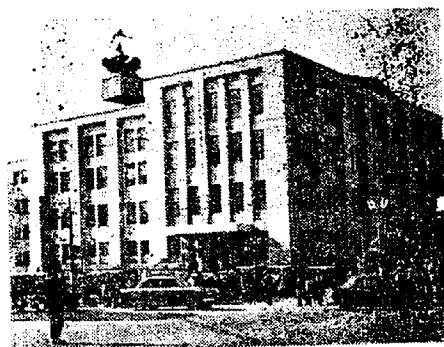
인권		human rights
존엄하다		to be dignified, solemnified
보석		jewel
수단		means
위엄		dignity
인격	人格	personality, especially
행사하다		to exercise
침범		invasion
이성	理性	reason
합치하다		to agree with
구태여		deliberately
재산		property
개성		individuality
근세	近世	recent era
박애		philanthropy
귀족		nobility
봉건시대	封建時代	feudal age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부강	富強	wealth and power
공헌		contribution
소질		qualities
후진국	後進國	backward nation
복지	福祉	well-being
번영		prosperity
지주	支柱	support, prop, stay

Unit 2

상업을 돋는 기관—

상공 회의소, 상업 흥신소, 상품 검사소 등은 직접 상업을 경영하지는 않으나 상업이 그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돋는 기관들이다. 이런 기관의 기능을 알아보자.

1. 상공 회의소



상공 회의소

상공 회의소는 각 도시에 만들어지는 기관으로서, 상공업의 개선,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그 곳의 상공업자가 조직한 것이다. 여기서는 상공업자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맡아 보고 있다.

우리 나라에도 여러 도시에 지방 상공 회의소가 있고, 서울에 중앙 상공 회의소인 대한 상공 회의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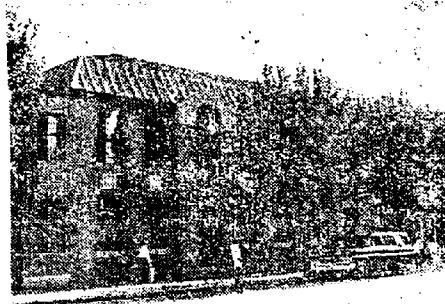
2. 상업 흥신소

상업 흥신소는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편의 신용을 알기 위하여 상업자들이 이용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일반의 의뢰를 받아 상대편 경영자의 인물이나 재산 상태, 영

업 성적 등을 조사하여 보고해 주고 보수를 받는다.

3. 상품 검사소

상품 검사소는 상품의 검사를 전문으로 맡아 보는 기관이다. 상품을 검사함으로써 그 품질을 높이고 규격을 통일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수출하는 상품의 검사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 검사 기관이 없다면 나쁜 품질의 상품이 외국에 나가게 되어, 그 상인이나 상품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신용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서울 농산물 검사소

4. 상공 장려관



국산품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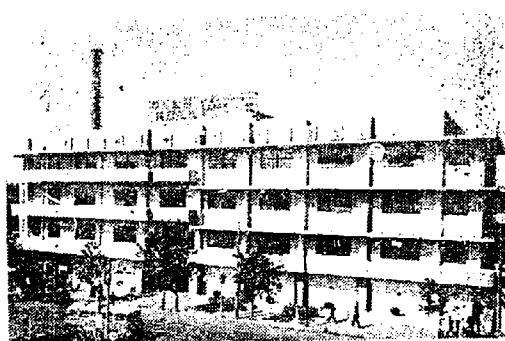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상공 장려관은 전시장을 마련하여 많은 상품을 진열하고, 국산품의 선전을 꾀하며 상공업의 발전을 돋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보고 있다.

상품 진열소, 물산관 등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관들이다.

박람회나 전시회도 진열소와 같은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나, 상설되지 않고 보통 정기적으로 열리는 점이 다르다.

5. 대한 무역 진흥 공사



대한 무역 진흥 공사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 무역 진흥
공사는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만든 공공 기관
이다.

여기서는 주로 국
산품의 수출을 진흥

6. 공증인 · 변리사 · 공인 회계사

이상 설명한 외에 상업을 돋는 사인(私人)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공증인(公證人)

공증인은 일반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민사에 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또 사서 증서에 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인(私人)이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

(2) 변리사(辦理士)

변리사는 특히, 실용 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상공부 특허국에 대하여 할 일의 대리를 하는 사인이다. 변리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공인 회계사(公認會計士)

공인 회계사는 종래에는 계리사라고 하였는데, 상공업자의 의뢰에 따라, 회계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또는 입안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인이다. 공인 회계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또 공인 회계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7. 상업을 돋는 행정 관청

세관(稅關)은 화물의
수출입, 선박의 입출
항, 항공기의 이착륙,
보세 지역의 관리 등
외국 무역에 관계되는
감독 및 정세 사무를
취급하는 관청이다.



걸풀하는 광경

세관은 보통 개항, 또는 국경 등에 설치되어 있다.
그 밖에도 상공부, 재무부, 체신부, 교통부, 외무부 등
상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감독 관청이 있다.

QUESTIONS

1. 상공회의소는 무슨 목적으로 누가 조직한 것입니까?
2. 상공회의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3. 상업홍신소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입니까?
4. 상업홍신소는 인물조사를 어느 정도 해줍니까?
5. 상업홍신소는 누가 많이 이용하는 기관입니까?

6. 상품검사소는 무슨 일을 알아보는 기관입니까?
7. 상품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8. 어떤 상품의 검사를 엄격하게 해야 합니까?
9. 상품검사소가 없으면 외국무역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10. 상공장려관은 무엇을 꾸하고 무엇을 돋습니다?

11. 상공장려관에서는 무엇을 진열합니까?
12. 박람회하고 상공장려관은 어떻게 다릅니까?
13.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무엇을 위하여 누가 만든 것입니까?
14.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주로 외국물건을 취급합니까?
15. 공증인은 무슨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까?

16. 무슨 문서가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게 됩니까?
17. 변리사는 무슨 일을 보는 사람입니까?
18. 공인회계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19. 세관은 무슨 사무를 취급하는 관청입니까?
20. 세관은 보통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VOCABULARY

상공회의소	工商會議所	Chamber of Commerce
통신소	通信所	credit bureau
상공장터관	工商獎勵館	Commercial and Industrial Museum
무역	貿易	trade
진흥	振興	promotion, furtherance
공사	公土	public corporation
공증인	公證人	notary public
변리사	专利士	patent attorney
증인회계사	公認會計士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상공업자	商工業者	merchants and industrialists
개선	改善	betterment
조직하기	組織	to organize
짜하다		to plan, scheme
상대편		the other party
신용	信用	credit
의뢰하다	依頼	to depend on
인물	人物	quality of man
재산상태	財產狀態	one's financial status
보수	報酬	recompense
품질	品質	quality
규격	規格	standard, norm
수출	輸出	export
진열하다	陳列	to display
견본	見本	sample
박람회		exhibition, exposition, fair



to top of
offers a
d the s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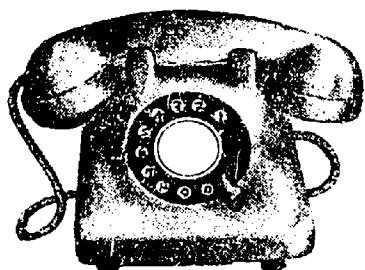
23

16



Unit 3

전화



미국(美國) 보스턴 시
(市)의 맹아 학교에 젊은 선생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서기(西紀) 1848년(年) 영국(英國) 스코틀란드에서 나서, 소년 시대(少年時代)를 그 곳에서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을 좋아하여, 그것만 하나 가지면 온종일 혼자 재미있게 노는 성미 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쯤 되면서부터 무슨 일에든지 ‘왜?’ ‘어떻게 해서?’ 하고, 아무나 붙잡고 물어 보기 때문에 성가실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모형 비행기(模型飛行機)에 취미를 붙여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잊고, 만들었다가는 부수고, 부수었다가는 만들고 하였습니다.

열 다섯 살 때, 그는 사람의 목소리에 대하

여 의문(疑問)을 품었읍니다.

“사람은 입술과 혀를 움직여서 여러 가지 다른 소리를 내는데,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 무슨 까닭일까?”

그는 사람의 소리를 내는 기계(機械)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읍니다.

이 소년의 ‘왜?’ ‘어떻게 해서?’는 벌써 연구(研究) 할 문제(問題)를 발견(發見)한 것이었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혼자 이 궁리를 한 결과(結果), 일 년이 지나서 이 소년은 기묘한 장난감을 만들었읍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처럼 생겼는데, 풀무로 바람을 불어 넣으면, 고무로 만든 입술이 움직여서 사람의 목소리를 내었읍니다.

스무 살이 지나서 그는 양친(兩親)을 따라 본국(本國)을 떠나 캐나다로 이사를 하였읍니다. 그는 그 곳에서 맹아 학교에 취직(就職)하여 귀머거리와 병어리의 교육(教育)을 맡아 보게 되었는데, 워낙 연구심(研究心)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성적(成績)이 좋았습니다. 이 소문(所聞)은 곧 보스턴까지 퍼져서, 그 곳 맹아 학교의 초청(招請)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말 못 하는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爲)하여 편리(便利)한 기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말을 할 때의 공기(空氣)의 진동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계도 연구해 보았고, 그 때에 유명(有名) 해진 전신(電信) 기계를 연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문득 다른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전신은 전기(電氣)의 힘으로 점과 금을 그어서 통신(通信)을 하지만, 그것을 사람의 목소리 그대로 전(傳) 할 수는 없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자, 곧 그 연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스턴 시의 어느 전기 기계 파는 집이 층(二層)에 방을 열어 가지고, 와드슨이라는 조수(助手)와 함께 목소리를 전

기로 보내는 기묘한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元來) 전기와 전신에 대한 전문가 (專門家)가 아닌 선생님은, 전문가에게 물기도 하고, 친구들의 의견 (意見)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찬성 (贊成)하는 사람보다도,

“뭐, ‘말하는 장난감’을 만들어? 전기한테 무슨 말을 시킨단 말이오?”
하고 비웃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스물 여덟 살 때, 불 일이 있어서 서울 와싱턴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편에 유명한 전기 학자 (學者) 조우지프 헨리 박사 (博士)를 찾아가, 자기 (自己)가 연구하는 목적 (目的)을 말하고 나서,

“저에게는 이 연구를 완성 (完成)하는 데 필요 (必要)한 전기의 지식 (知識)이 없읍니다.”
하고 좋은 의견을 청하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만 있던 박사는, 일흔 여덟 살 된 노인 같지도 않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꾸짖었읍니다.

“그런 큰 발명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네.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지 않은가?”

존경하던 대과학자(大科學者)의 말을 듣고, 선생님의 결심(決心)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후(後)부터는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와 연구에 골몰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근처(近處)에 있는 병원(病院)에서 사람의 귀를 하나 얻어 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귀에다 입김을 불어 보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막이 울리는 것을 실험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선생님이 정말 미쳤다고 야단들이었답니다.

사람의 귀를 가지고 실험을 하던 선생님은 고막 대신에 얇은 철판(鐵板)을 전기로 진동 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이 생각이야말로 선생님의 연구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어느 덧 달이 가고 철이 바뀌어, 또 삼 년이 지났습니다. 창 밖의 나뭇잎이 새파랗게 우거진 어느 여름날, 선생님은 오늘도 철사와 자석과 시계(時計) 태엽을 맞추어 만든 기계를 가지고, '말하는 장난감' 연구에 정신(精神)이 팔렸습니다. 건넌방에서는 조수 와드슨이 철사로 선생님의 기계와 연락된 다른 기계를 조사(調查)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입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기계에서 '부웅' 하는 소리가 가냘프게 들려 왔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와드슨이 있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보게, 지금 무얼 하고 있었나? 그 기계를 건드리지 말아요."

선생님의 손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말하는 장난감'은 마침내 철사를 통하여 가냘프나마 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성공(成功) 할 날도 멀지 않다!"

선생님의 희망(希望)은 불타올랐습니다. 이



리하여, 최후(最後)의 피나는 노력(努力)이
다시 계속(繼續) 되었습니다.

‘말하는 장난감’이 완성되던 날——그 실황
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기계 앞에 다가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기계를 향(向) 해서 말을 합니다.

“와드슨, 이리 좀 와 주시오.”

전년방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던 와
드슨은 깜짝 놀라서 기계를 떨어뜨렸습니다.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分明) 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철사를 통해서 들려 온 것입니다.

와드슨은 곧 선생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들렸습니다, 들렸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에 못이겨서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서기 1878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이 ‘말하는 장난감’은 말할 것도 없이 전화(電話)입니다. 이 전화를 발명한 선생님은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었고, 이 발명은 그가 바로 서른 살 때이었습니다.

QUESTIONS

알렉산더 그라함 벨은 어데서 소년 시대를 보냈습니까?
벨은 어렸을 때에 무엇을 좋아하였습니까?
벨이 무엇을 해서 성가실 지경이었어요?
벨은 모형 비행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목소리에 대하여 벨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벨은 누구를 따라 언제 어데로 이사를 하였습니까?
캐나다에서 벨은 어데 취직하였어요?
벨은 누구의 교육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벨은 보스턴 맹마학교의 초첨을 어떻게 받게되었습니까?
전신은 무엇을 그어서 통신을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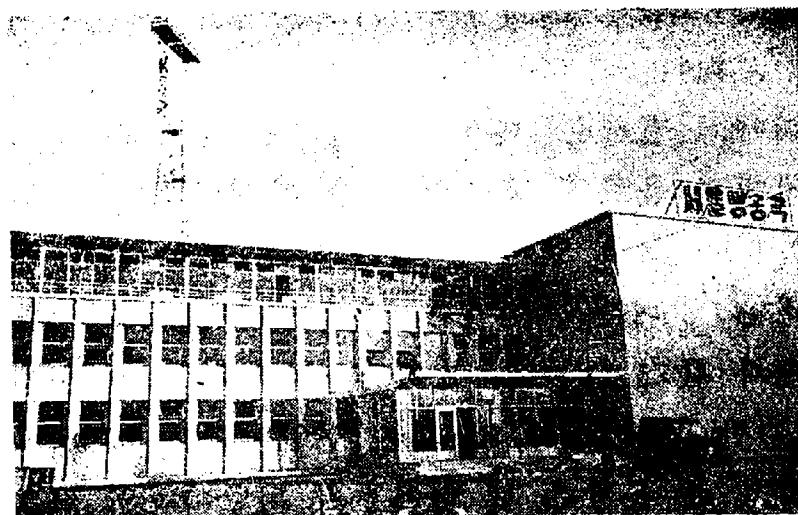
벨은 이 층에 방을 얻어 가지고 무슨 실험을 시작하였어요?
왜 벨을 미친 사람이라고 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와싱턴에서 벨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헨리 박사는 왜 벨을 꾸짖었을까요?
헨리 박사의 말을 듣고 벨은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벨이 병원에서 무엇을 얻어 왔습니까?
벨은 무엇을 가지고 진동시켜 보았습니까?
벨은 무엇으로 만든 기계로 연구를 계속했습니까?
벨이 전화로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이층에 방을 얻은 후 몇 해나 걸려서 전화를 발명했습니까?

VOCABULARY

맹아		the blind and the dumb
서기		Western Chronology
장난감		toy
성미	性味	character, disposition
성가시다		to be troublesome, bothersome
모형		model
의문	疑問	question
입술		lip
궁리하다		to ponder
풀무		blower
원숙		by nature, originally
진동		vibration
문득		suddenly
금		line
비웃다		to sneer at
심지어	甚至於	what is more
꾸짖다		to blame
풀물하다		to be absorbed (in work)
입김		steam of breath
야단하다		to fuss about
어느덧		before one knows it
우거지다		to grow thick
시계태엽		watch spring
가냘프다		to be feeble, thin, slender
다가서다		to come closer (and stand)

Unit 4



방송국 (放送局) 을 찾아서

방송국 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하시던 아저씨를 영희와 같이 찾아간 것은 3월 8일 오후 (午後) 3 시이었다.

아저씨를 찾으니 반가이 맞아 주시고, 이 곳 저 곳 데리고 다니시며 자세히 설명 (説明) 하여 주셨다. 우리는 중요 (重要) 한 대목을 수첩에 적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

편집실

편집실에서는 무선 전신(無線電信)으로 들어오는 외국(外國)의 뉴우스를 리시이버로 들으면서 타이프를 찍고 있었다.

이 외국 뉴우스는, 그 중(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추려서 어나운서에게 보내어, 전국(全國)에 새 소식(消息)으로 전(傳)해 준다고 하며, 나라 안 뉴우스와 함께 방송(放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된다고 한다.

옆 방(房)에서는, 어나운서 아저씨들이 원고를 들고 읽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우리들이 라디오에서 듣는 뉴우스 방송은, 이렇게 연습(練習)한 결과(結果) 이야기하듯 출출 거침 없이 나오는가 보다.

그 옆에서 분주하게 무엇을 쓰고 있는 분은 프로그램을 짜는 중이라 한다. 방송이란 위 낙 어느 한 사람만 위(爲)한 것이 아니고, 국민(國民) 여러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짜기는 가장 어렵고, 또 방송의 생명(生命)이 된다는 것이었다. 먼저, 여러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 가를 미리 조사(調查)한 다음에, 시간(時間)과 종류(種類)와 방송할 사람들을 정(定)하는데, 한 달 전(前)에 대강 계획을 세우고, 나흘 전에는 완전(完全)한 프로그램을 등사하여 돌린다 한다.

방 송 실

방송실(放送室)에 들어갔다. 조용한 방! 숨 소리까지 빨아들일 것처럼 고요한 방이었다. 벽(壁)이란 벽은 모두 형겼으로 짜여 있고, 주름잡힌 휘장이 사방(四方)에 드리워져 있다. 드나드는 문도 두겹게 이중(二重)으로 되어 있고, 유리창도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방바닥에도 양탄자가 깔려 있다. 방송에 필요(必要)한 소리 이외(以外)의 다른 잡음(雜音)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방



송실은 소리의 반사(反射)를 막는 특수(特殊)
한 장치로 되어 있는 것이다.

책상 위에는 마이크가 하나 놓여 있다.

“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마다
새로운 뉴우스가 우리 귀에 들려 오는구
나!”

생각하니 꿀 반가웠다.

제일(第一) 방송실에 들어갔다. 훨씬 넓게
꾸며져 있고, 그 안에는 마이크가 한가운데

큰 저울같이 달려 있. 여기가 음악(音樂)과 연극(演劇)을 방송하는 곳이라 한다.

그리고 보니, 피아노와 그 밖의 여러 가지 물건(物件)들이 많이 놓여 있다. 대문(大門) 여는 소리, 바람 소리, 파도 치는 소리, 비 오는 소리는 모두 이런 것으로 꾸며서 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꾸며 내는 소리를 음향 효과(效果)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문(門)이 펼쩍 열리자,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들어왔다. 아이들이 더 많았다.



“자, 나가자. 이제부터 어린이 시간에 할 방송극(放送劇) 녹음을 한단다. 우리, 부조 정실(副調整室)에 들어가서 듣기로 하자.”
고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녹음이라니요?”

나는 아저씨에게 여쭈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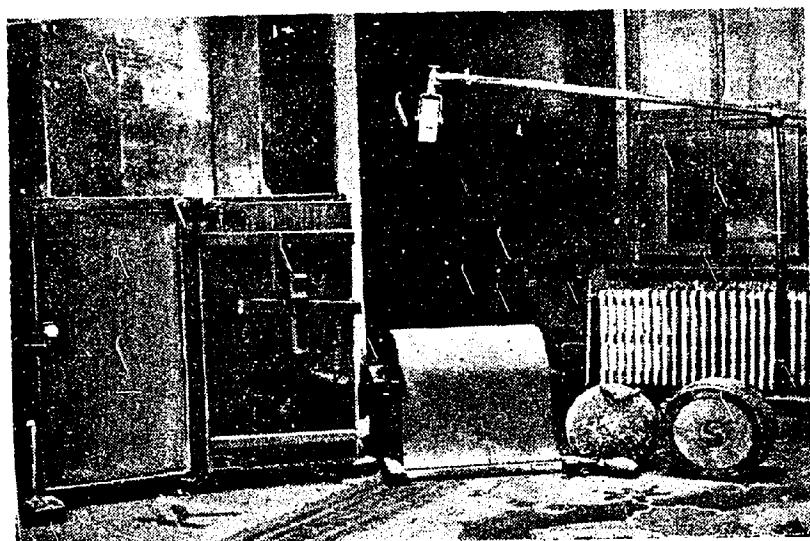
“방송할 것을 미리 기계(機械)에 녹음해 두었다가, 축음기(蓄音機) 레코오드처럼 필요한 때에 소리를 내어서 방송을 하는 것이다. 야구(野球) 시합(試合)이나 기념 행사(行事)의 실황을 나중에 보내 주는 것은 모두 녹음 방송으로 하고, 또 밤이나 새벽에 방송하게 되는 것도 미리 녹음을 하게 된단다.”

우리들은 부조정실로 들어갔다. 방송은 곧 시작되었다. 이 쪽에서 아저씨 한 분이 유리창을 통(通)하여 지휘(指揮)를 하고 있었다. 후(後)에 들으니, 이 분은 프로듀서라고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지휘를 맡아 본

다고 한다.

방송극은, 어린이들이 힘을 합하여 불쌍한 동무를 구해 주는 이야기이었다. 연극처럼 유 다른 웃차림도 하지 않고, 마이크 앞에서 서로 이야기만 하는 것이 꽤 이상하게 보였다. 재미있는 것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와 비바람이 윙윙 몰아치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장난감 비슷한 대문이 빼걱 열리고, 문고리가 철컥하는 것이 정말 비슷하였다. 바람 소리는 둥그렇게 물레방아 모양으로 만들어 놓



은 것에다가 두꺼운 헝겊을 써워 놓은 기계를
빙글빙글 돌려서 내고 있었다.

웬만한 소리 흡내는 거의 모두 이렇게 꾸며
서 내고 있다 한다.

부조정실에서는, 방송하는 소리를 부조정반
이란 기계에 넣어서, 소리의 크고 작음을 알맞
게 맞춘다고 한다. 잘못하면 안 들리는 수도
있다고 하니, 조정(調整)하는 분의 책임(責任)
도 역시 중요하구나 생각했다.

녹 음 기

부조정실을 나와, 조정반 녹음기 등 여러 가
지 기계가 많은 조정실에 들어갔다.

조정실 조정반 옆에는, 마치 활동 사진(活
動寫眞) 필름처럼 생긴 테이프가 한 쪽에서
감기면, 다른 쪽에는 연달아 풀리는 기계가 있
다. 이것이 녹음기라고 한다.

“저 얇은 테이프가 돌아가는 동안에, 방송
하는 소리가 그 속에 입혀진다.” 그 전에

는 축음기 레코오드 같은 판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간단(簡單)히 녹음을 할 수 있게 됐단다. 너희들, 이 방송이 끝나거든 녹음을 시켜 줄까?"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물론 우리들은 "예, 예." 하며 기뻐하였다.

견학(見學)이 끝난 다음, 우리들은 다시 방송실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였다. 영희는 애국가(愛國歌)를 부르고, 나는 아저씨가 적어



주신 것을 읽었다.

녹음이 끝나자, 우리들은 조정실에서 곧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먼저 영희의 애국가—— 노래 잘 부르는 영희의 고운 목소리가 조그만 기계 속에서 울려 나오는 게 참 신기하였다. 그 다음이 바로 내 목소리—— 이것은 더 재미있고 신기하게 들렸다.

“이것으로 어린이 시험(試驗) 방송을 끝마치겠습니다. 지금 노래를 부르신 분은, 김영희 아가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서울 중앙 방송국 제일 방송입니다. 에이치, 엘, 케이, 에이.”

분명(分明)히 내가 읽은 그대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목소리 같지 않았다. 그러나, 영희는 내 목소리 그대로라고 한다. 아저씨도 웃으시면서,

“녹음을 해서 듣는 게 정말 네 목소리다.” 하시었다. 어나운서들은 이렇게 녹음을 들으

면서, 자기(自己)의 말하는 버릇을 알고, 또 그것을 고쳐 간다는 것이었다.

조 정 실

우리들은 조정실에서 녹음을 들은 다음, 거기에 있는 큰 기계들을 구경하였다. 크고 작은 진공관(眞空管)의 파란 불들이 비치고 있었다.

이 방에서는, 방송실 옆에 있는 부조정실의 조정반을 통해 나온 방송을, 다시 이 곳 조정반을 통하여 해서 더욱 고르게 조정하여, 유선(有線)으로 연희 송신소(送信所)로 보낸다는 것이었다. 연희 송신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100 kw 송신기(送信機)로 방송을 크고 강(強)하게 하여 안테나로 보내서, 전파(電波)를 전국(全國) 방방곡곡에 퍼뜨린다는 것이었다.

QUESTIONS

1. 편집실에서는 무엇을 타이프를 찍고 있었어요?
2. 어떤 소식을 뉴스로 전해 줍니까?
3. 어떤 문서들은 왜 원고를 읽는 연습을 합니까?
4. 프로그램을 짜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5. 완전한 프로그램은 언제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6. 방송실의 벽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7. 방송실의 문과 창을 특별히 만들었습니까?
8. 第一 방송실에서는 무엇을 방송하는 곳입니까?
9. 음향 효과를 내기 위하여 무엇이 있습니까?
10. 예를 들면 무슨 프로그램을 녹음 방송으로 합니까?

11. 부조정실은 무엇을 하는데 입니까?
12. 프로듀서는 무슨 일을 맡아 보고 있습니까?
13. 조정실에는 무슨 기계가 있었습니까?
14. 녹음을 잘 하는데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15. 에이치, 엘, 케이, 에이는 무엇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16. 방송국하고 극장에서 하는 연극은 어떻게 다릅니까?
17. 방송국에서 연희 송신소로는 방송을 무선으로 보냅니까?
18. 연희 송신소에는 얼마나 강한 송신기가 있어요?
19. 연희 송신소에서 보내는 전파는 어디까지 퍼뜨립니까?
20. 서울 방송국은 관영인데 미국에도 관영 방송국이 있습니까?

VOCABULARY

대목		most important occasion
편집실		editorial department
거침없		smoothly
등사		mimeographing
주름		pleats, wrinkles
회장		curtain
드리우다		to hang down
양단자		rug-cloth
잡음	雜音	noise
반사	反射	reflection
끄미다		to finish up, fix up
음향효과		acoustic conditions
방송극	放送劇	radio drama
조정	調整	adjustment
녹음	錄音	sound recording
기념	紀念	commemoration
행사	行事	event, function
유다르다	類	to be uncommon
문고리		door handle
물레방아		water mill
꾸미다		to put together, fix up
진공관		vacuum tube
유선	有線	having wires, wired
송신	送信	transmission
전파	電波	radio wave





The textile industry is responsible for 25 percent of all goods manufactured in the ROK.

A hoist lowers a railroad tanker from a freighter at Pusan, Korea's largest port.

Unit 5

목 花

따스한 가을볕에 하늘거리는 하얀 꽃송이!
한두 송이가 아니고 흰 눈이라도 내린 듯이
눈이 부신 하얀 꽃밭! 알고 보면 그건 꽃밭
5 이 아니라 木花밭이다. 사람들은 보통 그 흰
木花 송이를 꽃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꽃이
아니라 열매가 익어 벌어진 것이다.

그 열매의 씨를 빼면 포근하고 따뜻한 솜이
되고, 그것에서 실을 뽑아 짜면 우리들의 일
10 상 생활에 必要한 무명 옷감이 되는 것을 생
각하면, 참 대견한 꽃송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고마운 植物 木花는, 約 六百年
前까지는 우리 나라에는 없었다.

本來 南쪽 나라에서 태어난 이 木花가 우리
15 나라에서 재배되어 솜으로 옷감으로 쓰이게
된 데까지에는, 木花처럼 따뜻하고 고마운 어
른의 수고가 숨어 있는 것이다.

고려 말기에 어떤 선비가 있었다. 그는 어



려서부터 성품이 곧을뿐더러, 효성이 지극하고 문장이 뛰어난, 공민왕 때의 사람이었다. 선비는 국명으로 멀리 中國 대륙 元나라에 갔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三年이란 긴 세월을 머나먼 타국 他國 시골에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우기, 그가 지낸 곳은 우리 나라보다 기후가 매우 덥고 병病도 또한 많았다. 그래서, 病에 걸려 자리에 누웠던 일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멀리 떠나 온 고국을 그리며, 혼자 밭길을 거닐다가 하얀 꽃밭을 보게 되었다.

“아, 곱기도 해라! 저게 무슨 꽃들일까?
무슨 꽃을 밭에 저렇게 많이 심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그가 가까이 가 보니, 그
것은 꽃이 아니고,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木
5 花 송이라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에게서 그 木花의 쓰임을 알았을
때, 그는 문득 추운 地方에서 사는 고국 사람
생각이 났다.

“그렇다! 꼭 이 木花씨를 가지고 고국에
10 돌아가자. 가서 이것을 全國에 퍼뜨려 숨을
만들고 옷을 지어 입게 하자.”

그 當時 우리 나라에는, 오늘날과 같이 털로
짠 옷감은커녕, 삼베가 아니면 비단밖에 없었
다. 삼베로는 추위를 막기 어렵고, 비단은 비
15 싸서 일반 國民에게 고루 미칠 수 없었다.

그는 이 木花씨를 가지고 고국에 돌아오고
싶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럴 수도 없는 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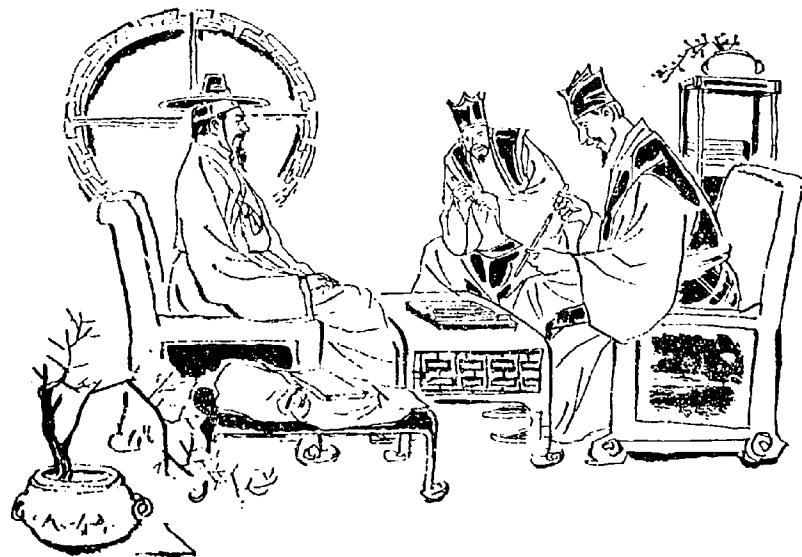
“外國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나 이 木花를

보고는 신기하게 여기고 탐을 내지요. 그래서 이 종자를 自己 나라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건 국법으로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라 밖으로 이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 웃 속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가려다가 들 키어, 벌을 받은 일도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은 그는, 어떻게 하면 무사히 이 종자를 고국 땅에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나, 10 별 신통한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하루는 방에 앉아 글씨를 쓰다가, 문득 붓두껍을 집어 들고 혼자 기뻐하였다.

“옳다, 되었다. 여기 넣어 가지고 가자.”

마침내, 그는 그리운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다. 그가 고국으로 떠나려 할 때, 관리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던 말대로 그의 짐이며 웃까지 살살이 뛰지는 것이었다. 木花 종자를 숨겨 가지고 가지나 않나 하여서였다. 그러나,



붓두껍 속에 든 木花씨를 알 리가 없어, 그는 무사히 고국에 돌아왔던 것이다.

그는 고국에 돌아오자, 곧 짐을 풀고 붓두
껍에서 木花 씨앗을 꺼냈다. 겨우 세 틀! 얼
5 마나 귀중한 씨앗이었을까?

그는 이것을 고향인 경상 남도 산청군에 정
성스럽게 심었다. 그러나, 짹이 튼 것은 겨우
하나뿐이었다. 이것을 들며 나며 아껴 가꾼
보람이 있어, 짹은 잘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마침내, 열매가 익어 하얀 木花 송이
가 탐스럽게 피었다.

처음에 단 하나의 짹이 자랄 때에는, 벌레
라도 먹으면 어찌나, 비바람에 출기가 꺽이
면 어찌나 하고, 바람 앞에 등불을 든 사람처 5
럼 염려가 되었으나, 이제 제법 많은 씨앗을
얻을 수 있게 되자 그의 기쁨은 참으로 컸다.

이듬해, 그 씨를 또 심었더니, 이번엔 적
지 않은 꽃밭을 이루었다. 이렇게 三年 동안
밭은 木花씨는 이웃에서 이웃으로, 마침내는 10
나라 안에 짹 퍼졌고, 사람마다 다투어 이 솜
꽃이 예는 신기한 植物을 심으려 했다.

木花 송이는 그것이 그냥 솜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이 풁사리 실이 되어 옷감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선 木花 송이에서 씨를 15
빼야 했으나, 그 씨는 좀처럼 빼지지 않는다.
빠진파 하더라도, 그것을 손으로 일일이 빼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손쉽게 이 씨를 빼 수 있을까 하여 연구에 연

구를 거듭한 결과, 마침내 쉽게 씨를 뽐 수 있는 간단하고도 便利한 기계와 또 실을 뽐는 기계도 만들어 내었다.

그는 물론, 그의 친척들까지도 그의 뜻을 5 반들어 그 기계 연구에 노력하였는데, 그의 손자 문래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실 뽐는 기계를 만들어 내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실을 뽐는 기계를 물레라고 하는데, 이는 문래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10 이로부터 우리 나라는 木花 재배국이 되어, 일상 衣服에 두한히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면포를 수출하여 外國의 화폐를 벌어들이게 되었으니, 그가 나라에 끼친 공적은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다.

15 그는 나이 일흔에 世上을 떠났으나, 그의 따뜻한 마음씨는, 철을 따라 피는 부드러운 흰 木花 송이와 함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살아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선비가 바로 문 익점 先生이다.

QUESTIONS

1. 木花는 어떻게 해서 무명 옷감이 됩니까?
2. 木花는 몇年前까지 한국에 없었습니까?
3. 本來 木花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4. 문익점先生은 어느 때의 사람이었어요?
5. 문先生은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6. 문先生은 國命으로 어데 갔었습니까?
7. 三年동안 문先生은 어데서 보내였습니까?
8. 문先生은 언제 木花 송이를 처음으로 보았습니까?
9. 누구한테서 木花의 쓰임을 알았어요?
10. 그때 문先生은 왜 고국사람 생각이 났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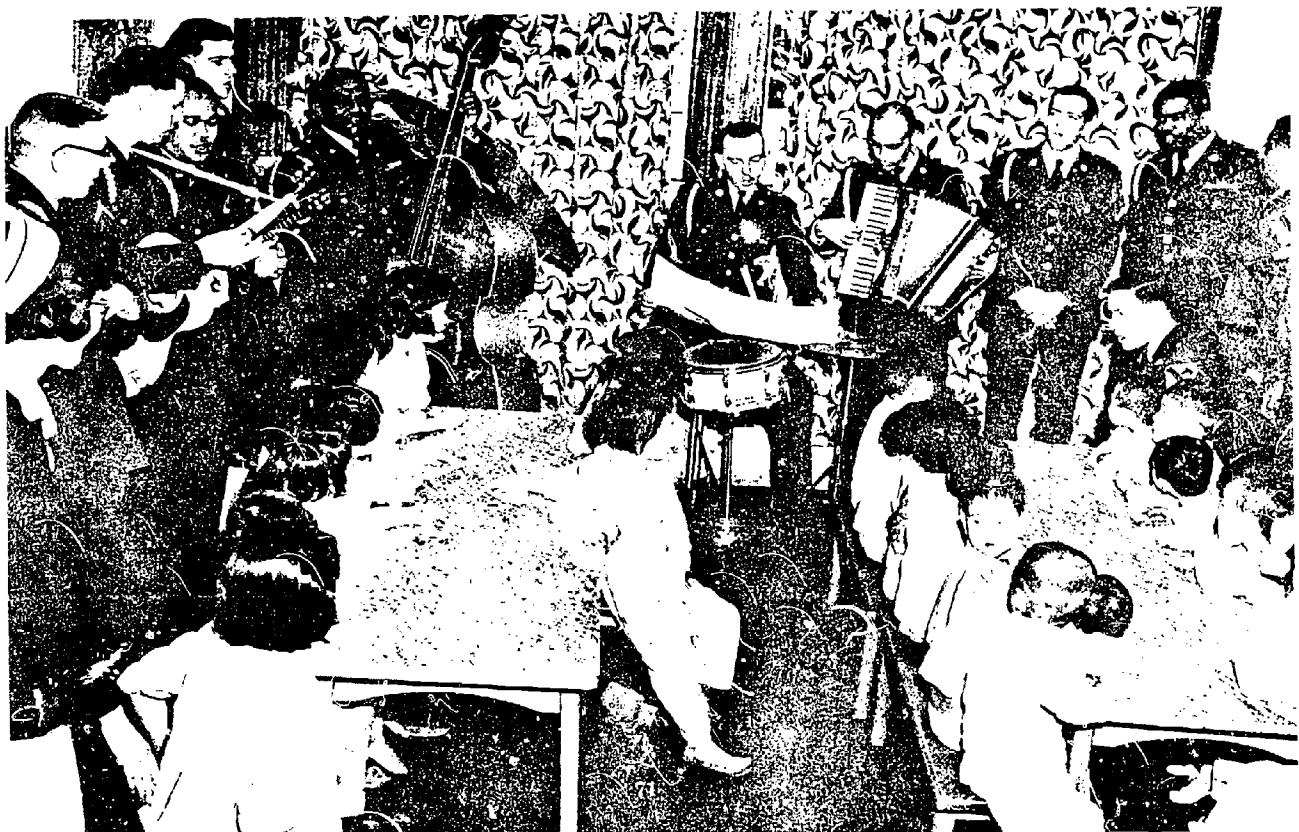
11. 그때 문先生은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12. 그 당시 한국에는 옷감으로는 무엇이 있었어요?
13. 元나라에서는 국법으로 외국사람한테 무엇을 못 하게 했어요?
14. 元나라 관리들이 문선생을 언제 어떻게 조사했어요?
15. 문先生은 어떻게 木花씨를 가지고 고국에 돌아왔어요?

16. 문先生은 고향에 와서 몇틀이나 木花 씨앗을 심었어요?
17. 씩이 튼 것이 몇이나 되었어요?
18. 문先生은 무슨 기계를 만들어 내었습니까?
19. 물레는 무슨 기계며 어데서 온 이름입니까?
20. 木花 재배국이 어떻게 外國의 화폐를 벌어들입니까?

VOCABULARY

목화	木花	cotton plant
하늘거리다		to be dangling
꽃송이		blossom
눈이부시다		one's eyes are dazzled
열매		fruit
포근하다		to be soft
뽑다		to pull out
짜다		to weave
무명		cotton
대견하다		to be helpful
재배	栽培	cultivation
수고		efforts, taking troubles
선비		scholar
성품	性品	nature, disposition
효성		filial piety
지극하다		to be extreme
그리다		to be lonely for
커녕		to say nothing of
삼베		hemp cloth
붓두껑		brush cap
샅샅이		everywhere
씨앗		seeds
보람이 있다		to be worthwhile, useful
면포	綿布	cotton cloth
화폐		money

Members of a Division's orchestra entertain the children in one of the orphanages near their area.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의한 삼권 분립(三權分立)의 원칙을 찾아볼 길도 없으며, 공산당의 인당 독재로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폭동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노동자와 농민의 정당한 활동을 엄격히 비난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정부가 아니라 아울러 일반 사회인 정당으로서나 할 수 것이다.

경제 사정

공산주의는 끝내 자본주의 체제를 탈피하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의 우두머리들이 자본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소유자들을 학취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천박하게 보아도 되는데, 끝내 우두머리 자본가들은 모조리 품주(段眾)하여 그것을 이용해 노동 단체 소유로 만들었다. 공장, 평원, 철도는 물론이고, 농토나 산림도 모조리 국유화해 버렸다. 그리하여, 북한은 모조리 우두머리 공산 속에서의 아름다운 광경을

공산 국가에서 속한 국민의 자유와 협상을 인정하지 않고는 전통 이미지를 훼손해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화 과정에서도 이동이 있다. 즉, 북한은 끝내 자본가의 그물에 가봉가가 됐고, 자본가는 그 끝에 끊임없이 걸리는 철이 그물의 주체이다. 그물은 이

와 같은 허울 좋은 이론을 내세워 국민의 재산을 몰수 함으로써 공산당 간부는 자본가가 되고, 국민은 보조리 그들의 노예로 만들고 만 것이다.

농민의 사정은 더욱 말이 아니다. 모든 농민은 집단 농장에서 일군으로 일군 해서 애써 농사를 지어 내면, 그 과정을 전부 공출해 내고 나서 양곡의 배급을 받는 것이다. 그 배급이나마 한 입구가 막고 살 만한 분량이 되지 못한다. 이에 비하여 공산당 우두머리에 있는 자들은 일반 국민과는 배급소마저 단리하여 아주 좋은 것 만을 훔쳐서 허니하게, 또한 한 굽으로 배급을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일반 사회 생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각자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의(自意)에서 나온 일이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자의에서가 아니라 강제로 노동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정도가 지나치게 심한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아름난 것은 천리마(千里馬) 운동이니. 이는 하루에 천리길을 달리는 말처럼 고되게 일을 하라는 말로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서로 경쟁을 시키는 운동을 뜻하는 것이다.

이리한 처지에 사는 노동자, 농민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죽도록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삶을 반지 못하고 무시무시한 감독만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權益)을 위한다는 노동 조합이 있기는
하나, 사실은 공산당의 일자리로서 노동자를 더욱 괴롭
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따끔이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무산자라는 위하는 정치를 한다
는 공산 북한은 사실은 무산자인 국민 대중의 기생을 최
대한으로 강요하여, 여기서 나온 이익을 독재자를 위시
한 공산당 간부들이 독차지하는 정치를 하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QUESTIONS

1. 공산주의는 본래 어디서 시작한 것입니까?
2. 공산독재 정치의 내막이 무엇입니까?
3. 왜 일당 독재라고 합니까?
4. 북한에서는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5. 북한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전혀 안 쓸니까?

6.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 의원을 어떻게 선출합니까?
7. 북한에는 정당이 몇이 있습니까?
8. 선거때에 흰 험과 짙은 험을 무엇에 사용했습니까?
9. 그 제도가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0. 북한의 인민회의는 어떻게 법률안을 통과시킵니까?

11. 인민회의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축첨을 당하고 맙니까?
12. 북한의 사법부에서는 공정히 법률을 실시합니까?
13. 인민재판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재판입니까?
14. 삼권분립이 무엇이며 왜 민주주의 정치에 필요합니까?
15. 북한에서는 왜 삼권분립의 원칙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16. 북한에서는 무엇을 국유화 해 버렸습니까?
17. 북한에서는 누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어요?
18. 북한에서는 왜 국민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19. 북한에서는 양곡의 배급상태가 공정하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20. 천리마운동이 무엇입니까?

VOCABULARY

실정	実情	real condition
자본가	資本家	capitalist
빈부	貧富	the poor and the rich
차이	差異	difference
폭력	暴力	violence
쪼들리다		to be oppressed
무산자	無産者	proletarian
두목	頭目	boss
정권을 잡다		to take power (government)
뒷받침		(indirect) support
독재	独裁	dictatorship
무조건	無條件	unconditional
명령계통	命令系統	chain of command
허울이 좋다		to look nice
헌법	憲法	constitution
주권		sovereign power
노동당	勞動黨	Labor Party
국회의원	國會議員	Assemblyman
선거하다	選舉	to elect
정당	政黨	political party
경쟁	競爭	competition
입후보	立候補	candidacy, being candidate
투표하다	投票	to vote
법정	法廷	court (judicial)
천리마	千里馬	very fast horse







Unit 20

북한의 천리마 운동

6·25의 참극을 빚어 낸 북한 괴뢰 도당은, 해방 후에 인민들로부터 끌어 모았던 재산을 모조리 전쟁에 써 버리고, 더 이상 견디어 나갈 수가 없게 되자, 휴전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이 휴전 기간을 이용하여 다시금 군비를 강화하여 남한을 침략할 야심을 품고, 북한 인민들을 들볶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인민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곧 '천리마 운동'이다. 원래 이것은 북한 괴뢰가 처음으로 시작한 착취 방법이 아니라, 그전부터 이미 소련 중공 등 공산 국가에서 사용하던 것을 본받은 것이다. 즉, 소련의 소위 '돌격 증산 운동'이라든지, 중공의 '대약진 운동'을 본딴 것이다. 그러나, '천리마 운동'은 그 어느 것보다도 혹독한 것이다.

이 천리마 운동은 정말로 경마(競馬)를 시키듯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서로 경쟁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가장 잔인하고 악착스런 착취 방법인 것이다.

그들은 어떤 노동자나 후은 작업반(作業班)을 내세워 이들이 굉장한 생산 실적을 올렸다고 조작해 놓고는, 이

것을 모범으로 삼아 다른 모든 사람, 모든 직장들로 하여금 이것을 따르고, 나아가서는 그를 앞서라고 채찍질 한다. 이렇게 초인간적(超人間的) 경쟁을 시켜 놓고, 이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자에게는 소위 '노동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어 약간의 물질적 우대를 해 준다. 그리고는 그 반면에, 뒤떨어진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같은 인간으로서 그를 따르지 못했다는 책임 추궁과 박해를 하면서, '모범적 선진 노동자를 따르라!'고 무자비한 채찍을 가한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작업량의 목표를 몇 배를 초과 달성하는가를 경쟁시켜, 가장 우수한 작업만에게 '천리마'라는 칭호를 붙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한 번만 이렇게 칭호를 얻으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이 칭호를 딴 반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이중 삼중으로 그 칭호를 받도록 독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중 천리마 운동'이라고 한다. 만일 천리마의 칭호를 받지 못하면 초인적, 살인적인 노동을 하는 이상으로 심한 시달림을 받고, 모멸과 비판을 받게 된다. 공산 세계에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속죄과 죽음을 뜻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누구나가 혈안이 되어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천리마가 되기 위하여 일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천리마 작업반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 첫째는, 목표량을 시일 내에 초과 달성해야 할 것이나, 설사 초과 달성하였다 할지라도 그 반원 가운데 낙오자가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안 되고, 반원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근을 하면 안 되며, 지각은 반원 전선에서 세 번 이상 하면 자연히 실격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연대 책임으로써 초과 생산을 보장해 보자는 속셈에서인 것이다. 특히 반원들 상호간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상대를 독려하고 감시하여, 어떤 경우에는 같은 반원끼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반원을 못 살게 굴도록 하게끔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반원이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결근을 하였거나, 지각을 하여 천리마가 못 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전 반원이 밤낮으로 두고 두고 '너 때문에 천리마가 못 되었다.' 하고 원망하며 공격하게 마련이다. 참으로 이것은 죽기보다 피로운 일이다.

그런데, 이 운동은 노동자들에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시키며, 심지어는 문화 단체의 문인, 작곡가, 시인을 비롯하여 의사, 간호원

들에게까지도 이것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는 병이야 낫든 말든 널어놓고 많은 수의 환자를 보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연대 책임이나 올바른 경쟁 정신이란 '우리들의 민주 사회에서도 강조되는 미덕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덕이 되기 위하여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느끼고, 올바른 방법으로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 그 결과는 각자에게 이익이 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 사회에서는 이것을 인민을 착취하는 방법의 하나로 쓰고 있으며, 사람의 자연적 심리를 악용하여 서로 반목(反目)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니, 공산 제도가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한가를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QUESTIONS

1. 6·25의 전쟁을 빌어낸 북한이 왜 휴전을 제의하게 됐어요?
2. 이 휴전 기간을 이용하여 북한에서는 무엇을 시작했어요?
3. 천리마 운동은 무엇을 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입니까?
4. 천리마 운동은 북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5. 천리마 운동을 소련에서는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6. 천리마 운동은 중공의 무슨 운동하고 같습니까?
7. 천리마 운동을 왜 잔인한 착취 방법이라고 합니까?
8. 북한에서는 누구에게 노동영웅이라는 칭호를 줍니까?
9. 북한에서는 누구에게 무자비한 채찍을 가합니까?
10. 천리마라는 칭호를 누구에게 불여 줍니까?

11. 천리마라는 칭호를 한번만 얻으면 그것으로 그칠까요?
12. 무슨 특權을 '이중 천리마 운동'이라고 합니까?
13. 공산세계에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4. 북한 사람들은 왜 천리마가 되기 위하여 일을 하게 마련입니까?
15. 반원 가운데 낙오자가 몇 사람이 안 되면 천리마 작업반이 됩니까?

16. 천리마 작업반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이 몇 번 이상이면 안 됩니까?
17. 연대 책임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18. 천리마 운동은 노동자들에게만 시집니까?
19. 천리마 운동 때문에 의사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20. 민주사회와 공산사회를 노동자에 대한 정책면에서 비교하여 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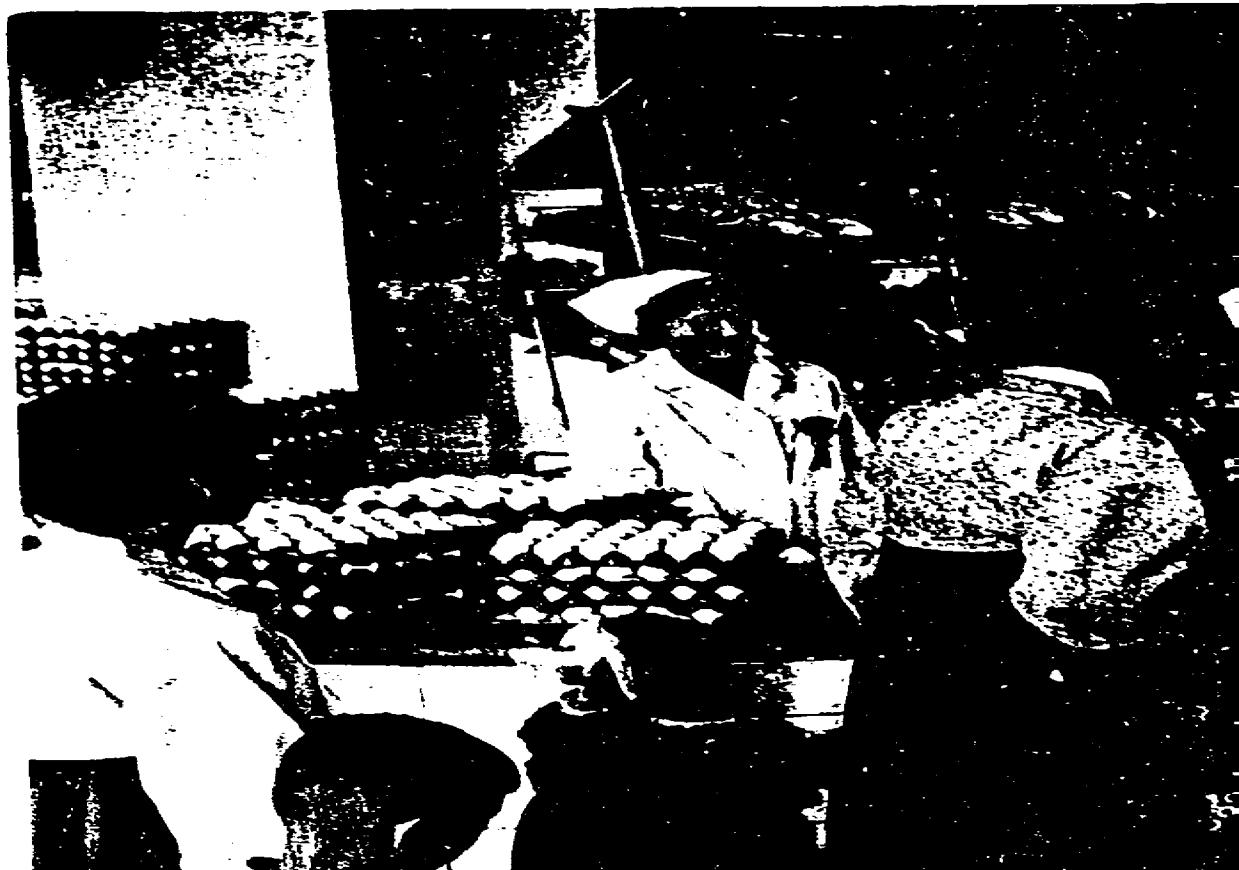
VOCABULARY

괴뢰		puppet
도당	徒党	band
침략	侵略	invasion
야심	野心	ambition
돌볶다		to torment hard
효과	效果	effect
착취하다	榨取	to squeeze out, exploit
고안하다	考案	to plan, design
본받다		to follow the example of
돌격	突擊	assault
증산	增產	increased output
약진	躍進	advance by rushes
혹독하다		to be severe
경마	競馬	horse race
잔인하다	殘忍	to be cruel
악착스럽다		to be stubborn
작업반	作業班	work party
생산	生産	production
실적	実績	record of performance
조작하다	造作	to manufacture
모범	模範	model
직장	職場	place of employment
채찍질하다		to urge on, spur on
초인간	超人間	superman
영웅	英雄	hero

209



조윤민동무가 일하는 기계공장 저너선반공들은 모두가 다 기능공들이며 혁신자들이다.
그들은 금년 1. 4분기 생산계획도 140 %로 초과수행하였다.



식료품상점일군들은 공장로동자들의 수요
있는 힘과 설의를 다하고 있다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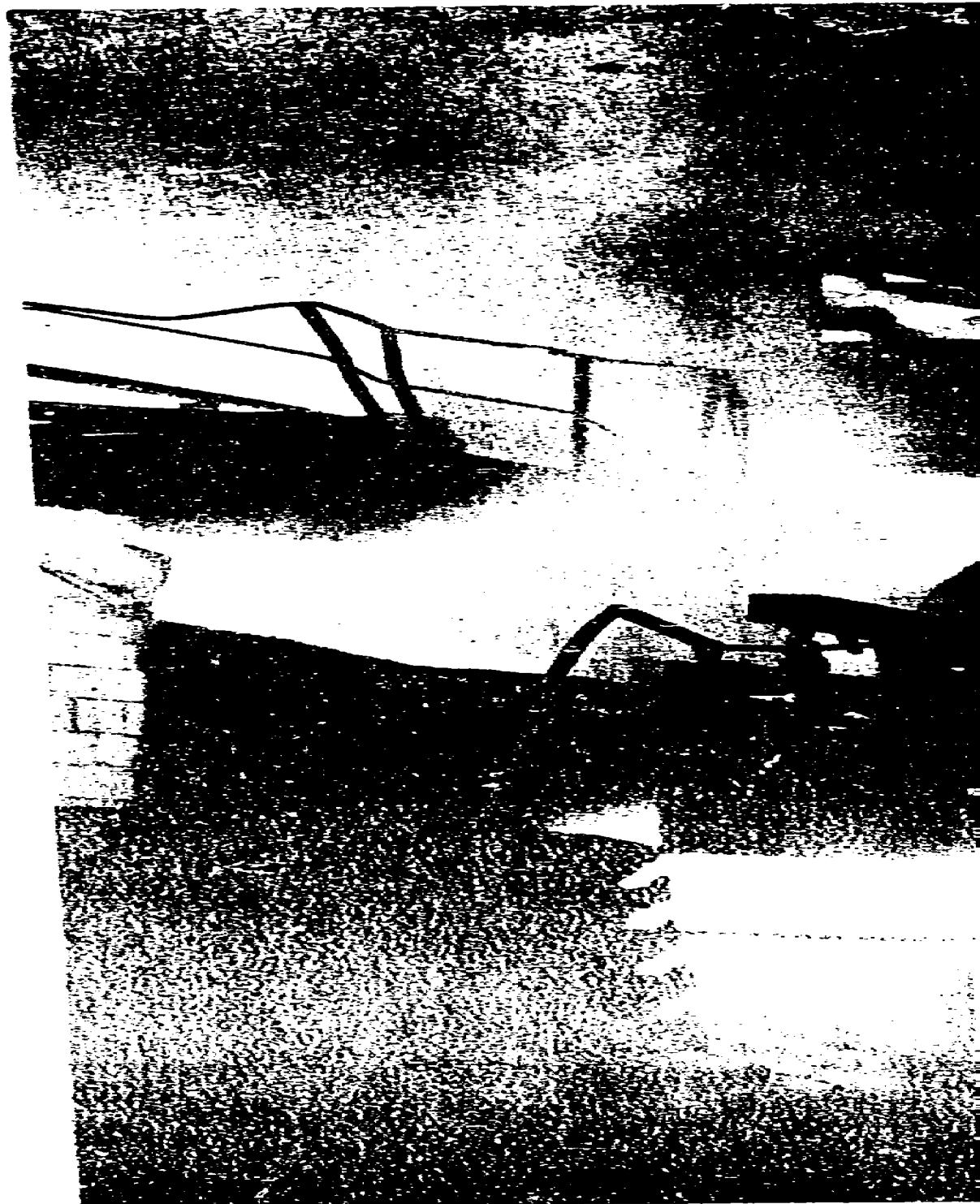
한국대안전기금장에서는 경매에는 수령님이 현지교시를 관찰하여 남세월에 분수·관수체계 ■

도입하였다. 그러나 금년에도 로동자들에게 긴장용남세계를 풍부히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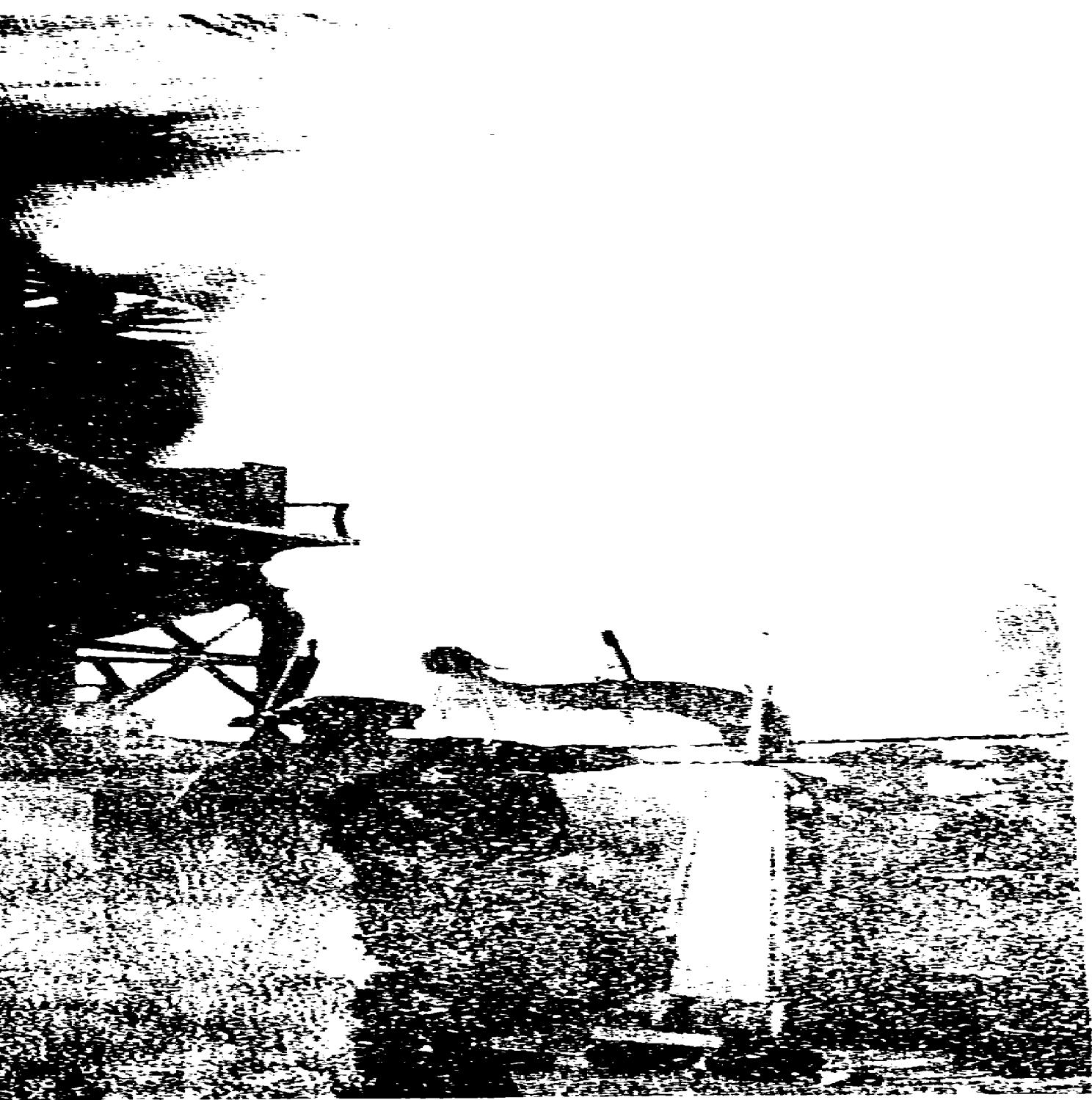


자발한 충산경쟁끝에 기쁨을 나누고있는 전리마한
간준작업반원들, 그들은 자기들의 승리에 조금도 자
만하지 않는다





2024. 2. 2.
제 100호



201 세자